

# 물음표 지워라... 호랑이 4선발 최후 승자는?



멥덴



임기영



이의리



김현수

## T 타이거즈 전망대

### ‘천적’ 두산에 시즌 첫 경기 패배 불펜 불안 등 고질적 약점 드러내 이번주 키움·NC와 6연전

### 멥덴, 오늘·일요일 2경기 선발 이의리 선발 등판 8일로 미뤄져 최형우, 2000안타 -14

상대도 만만치 않다. 까다로운 상대 키움은 비를 피하면서 3·4일 모두 경기를 치렀다. 두 경기를 다 소화하면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

4일에는 0-3을 뒤집고 7-4 역전승까지 장식하면서 분위기도 뜨겁다.

안방에서 만나게 되는 ‘디펜딩 챔피언’ NC는 전력누수 없이 2021시즌을 맞은 강력한 우승후보다. 변수 많은 KIA에는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중요한 6연전이다.

새 외국인 투수 멥덴의 어깨가 무겁다.

멥덴은 6일 키움 최원태와의 맞대결로 KBO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그리고 4일 휴식 뒤 11일 NC전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름으로는 ‘특급 외국인 선수’지만 몸상태·스피드를 지켜봐야 한다. 멥덴은 마지막 시범경기 등판에서 강백호를 앞세운 KT 타선에 못매를 맞으면서 고전도 했었다.

‘낮춤’을 무기로 빠르게 이닝을 지워가는 게 중요하다.

기다렸던 이의리의 등판은 8일로 미뤄졌다. 등투자이라는 낮은 환경에서 ‘루키’가 어떤 데뷔

전을 치를지 KIA는 물론 프로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선발 경쟁의 1차 승자가 된 임기영과 김현수도 ‘난작’을 상대로 선발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고심 끝에 구성된 KIA 선발진의 표정에 따라 팀의 초반 분위기가 좌우될 전망이다.

한편 개막전에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던 ‘4번 타자’ 최형우는 이번 주 안타 개시와 함께 2000안타를 노리게 된다. 앞으로 14개의 안타를 더하면 최형우는 KBO리그 통산 12번째 2000안타 주인공이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스런 개막전을 치른 KIA 타이거즈가 ‘강적’들을 상대로 마운드 테스트를 받는다. KIA는 지난 4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2021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비 때문에 하루 늦게 시작된 2021시즌, KIA는 첫 경기에서부터 예상했던 ‘숙제’를 확인했다. 이날 KIA는 1·2회 기선제압을 할 수 있었던 기회에서 연달아 나온 병살타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9회 마지막 기회에서도 병살타가 기록됐다. 선발진에서 유일하게 계산이 서는 ‘에이스’ 브룩스가 출격했지만 타선의 화력 지원이 따르지 않았고,

블랜드도 흔들렸다. 윌리엄스 감독이 캠프를 치르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불펜이었지만, 좌완 이준영과 우완 장현식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역전패로 2021시즌이 시작됐다. 2년 연속 3승 13패라는 지독한 열세를 보였던 두산이었던 만큼 시작이 중요했지만, 경기 초반 흐름과 ‘뒷심 싸움’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승리가 절실했던 첫판을 허무하게 내준 KIA는 새로운 한 주 살얼을 승부에 나서게 된다. 6일 고척으로 건너가 키움하이에어로즈와 만나는 KIA는 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홈 오프닝 시리즈를 치른다. ‘강적’들과의 승부지만 선발부터 예측불허하다. 브룩스를 제외한 선발 4자리에 물음표가 따라온다.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5선발 고민 속 양현종까지 꿈을 위해 떠나면서 선발 세 자리를 놓고 고민했다. 외국인 선수 멥덴도 현재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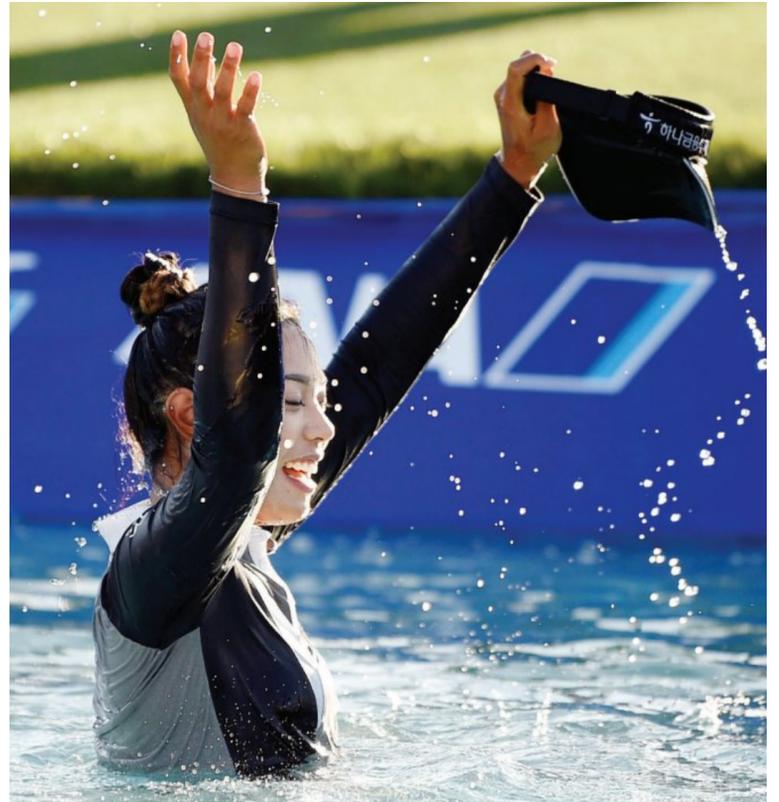
## 광주FC, 적장 올린 데뷔골 2개

### 인천전 2-1 역전승... 홈구장 첫 승 고졸 루키 엄지성·3년차 이희균 ‘골’ “너무 좋아 세리머니 기억 안 나” 소감 조성환 인천 감독 “기억하기 싫은 경기”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적장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데뷔골의 주인공. 광주FC의 전용구장 ‘첫 승’이 기록된 지난 4일 인터뷰에서는 같은 순간을 놓고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김호영 감독이 이끄는 광주는 이날 안방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2021 7라운드 홈 경기에서 엄지성의 동점골과 이희균의 ‘극장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경기 종료 직전에 기록된 짜릿한 역전승인 데다 지난해 7월부터 이어진 3무 9패의 부진을 털고 이뤄낸 전용구장 첫 승리여서 화제가 된 승리. 상대 입장에서는 ‘신예’들에게 연달아 프로데뷔골을 내주며 일격을 당한 만큼 패배의 충격은 더 컸다. 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만든 ‘고졸 루키’ 엄지

성과 극장골을 만든 ‘3년 차’ 이희균은 금호고를 졸업한 광주 유스 출신이다. ‘특급 신인’ 엄지성은 7경기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이 데뷔 첫 선발 출전이고 이희균은 올 시즌 처음 그라운드 밟은 날이었다. 선제골을 넣고도 팀의 주축 문자환이 필요 없는 반칙으로 퇴장을 당했고, 1초를 남겨두고 무승부를 날렸던 만큼 인천 조성환 감독에게는 최악의 하루가 됐다. 조성환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라는 말로 심경을 표현했다. 적장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게 만든 순간을 연출한 엄지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해 인터뷰 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엄지성은 골을 넣은 뒤 ‘무릎 슬라이딩’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잠시 동료들과 기쁨의 순간을 만끽한 뒤에는 늘 부모님을 향해 날렸던 손하트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엄지성은 “무릎 세리머니는 기억이 나는데 그 후에는 너무 좋아서 어떤 동작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첫 선발 경기라 긴장도 했고 그만큼 또 집중해서 기다렸던 첫 골을 만든 엄지성은 공격 기회가 오면

망설임 없이 슈팅을 날리는 겁없는 신인이다. 엄지성은 “내 장점은 양발 슈팅이다. 한 경기에 2-3개 정도 골을 때릴 수 있다.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장점을 살리고 싶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공격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희균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남았다. 이희균은 지난 2019년 업원상과 함께 특급 신인으로 주목받으며 프로에 뛰어들었다. 첫해 16경기에 출장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2019년 2경기, 지난해에는 1경기 출장에 그쳤다. 올 시즌에도 시작이 늦었다. 지난 6라운드 제주 원정에서는 교체 출전 직전, 갑자기 터진 동점골에 다시 벤치로 물러나기도 했었다. 마음 같지 않은 지난 2년을 보내면서 “축구가 길 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했던 만큼 더 간절했던 이희균의 시간이었다. 이희균은 “감독님께서 펠리페와 (송)승민이 형이 제공권이 좋은 선수니까 그 부분에서 준비하라고 강조하셨는데 운 좋게 골까지 됐다”며 “처음 들어갈 때는 긴장하기도 했지만 골 상황에서는 긴장도 안 되고 급하지도 않았다”며 잊지 못할 기억을 떠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



## 올 호수의 여왕은 타와타나킷

### LPGA 인스피레이션 37년만의 루키 우승... 김세영 공동 3위

태국의 패티 타와타나킷(22)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신고하며 ‘슈퍼 루키’의 탄생을 알렸다. 타와타나킷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파72·6763야드)에서 열린 ANA 인스피레이션(총상금 31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이글 하나와 버디 2개로 4타를 줄였다. 이번 대회 1~3라운드 단독 선두를 달려 돌풍을 예고한 타와타나킷은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 이날만 10언더파의 맹타를 휘두른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언더파 272타)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랭킹 103위인 타와타나킷은 2019년 LPGA

2부 시메트라 투어에서 3승을 거둔 선수다. 지난해 정규 투어에 데뷔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파행을 겪어 이번 시즌에도 신인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신인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건 역대 14번째, ANA 인스피레이션에서는 1984년 줄리 잉크스터(미국) 이후 37년 만이다. 아울러 타와타나킷은 2000년 카리 웹(호주) 이후 21년 만이자 역대 4번째로 ANA 인스피레이션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기록도 남겼다. 김세영은 넬리 코르다, 평산산(중국) 등과 공동 3위(11언더파 277타)에 자리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과 2위 박인비는 공동 7위(10언더파 278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 조던 스피스 ‘부활의 날갯짓’

### 4년만에 슬럼프 극복 PGA 텍사스오픈 우승... 김시우·이경훈 공동 23위

‘골든보이’ 조던 스피스(미국)가 부활했다. 스피스는 5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TPC 샌안토니오 오크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발레로 텍사스오픈(총상금 77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했다. 이와함께 통산 12승 고지에 올랐다. 2017년 디오픈을 제패한 뒤 3년9개월 동안 82차례 대회를 치르는 동안 우승 없이 추락했던 스피스는 다시 날아오를 재비를 갖췄다. 특히 고향 텍사스에서 부활의 노래를 퍼 더 감격스러웠다. 스피스는 우승 한번과 준우승 2번 했던 마스터스를 앞두고 자신감을 다시 채운 게 큰 수확이다. 데뷔 3년 만인 2015년 마스터스와 US오픈을 잇달아 우승하며 22살에 세계랭킹 1위를 꿰찼고 만

24살이 되기 전에 디오픈 정상에 올라 최연소 메이저 3승 기록을 세웠던 스피스는 타이거 우즈(미국)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혔다. 그러나 그는 2018년부터 슬럼프에 빠졌다. 우승 경쟁에 뛰어드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상위권 입상도 드물어진 스피스는 이번 시즌을 세계랭킹 92위로 시작할만큼 부진에 허덕였다. 한편 김시우는 4타를 줄인 끝에 공동23위(4언더파 284타)로 대회를 마치고 마스터스에 나선다. 1언더파 71타를 친 이경훈도 공동23위에 올랐다. 2타를 줄인 최경주는 공동30위(3언더파 285타)라는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노승열은 공동54위(이븐파 288타)에 그쳤고 강성훈은 이날도 3타를 잃어 공동59위(1오버파 289타)로 밀렸다. /연합뉴스